

# 제 66 호

서기 1999년(단기4332년 10월 25일(월)발행  
 서기 1983년 9월 26일 창간  
 구독신청 전화 : (02)2244-3717  
 기사 및 원고전송팩스 : (02)2243-1073



發行人：金相祚  
 編輯人：金命會  
 印刷人：宋載勳  
 發行處：安東金氏大宗會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徽慶洞 112-49  
 우편번호：130-091  
 전화：(02)2244-3717  
 FAX：(02)2243-1073

대체계좌：010983-31-0513119      예금주：안동김씨대중회

## 時享日程表

先祖位	享祀日	曜日	墓(壇)奉安所
忠烈公諱方慶 之墓	11月16日	火	慶北 安東市 祿轉面 竹松里
伶平國大夫人竹州朴氏 之壇	陰10月 9日午前 9時		慶北 安東市 豐山邑 檜谷洞
文英公諱恂 之墓	11月14日 陰10月7日	日	京畿 安養市 東安區冠陽洞後山
文肅公諱永嗽 之壇	11月13日	土	忠南 天安市 竝川面 佳田里
上洛伯公諱續 之壇	陰10月6日		
提學公諱益達 之壇			
貞簡公諱永熙 之壇	11月12日		
領三司事公諱武 之壇	陰10月 5日	金	忠北 清原郡 梧倉面 慕亭里
按廉使公諱士廉 之墓			
掌令公諱玖 之墓	11月21日	日	忠南 燕岐郡 全東面 美谷里
典書公諱成牧 之墓	陰10月初丁日		
密直司使公諱七祐 之壇	11月 7日	日	京畿道 抱川郡 東面 社稷里
開城尹公諱七霖 之壇	10月10日	日	京畿道 廣州郡 草月面 池月里
文溫公諱九容 之壇	11月 8日 陰10月 1日	月	京畿道 抱川郡 倉水面 伍佳里
都評議公諱九鼎 之墓	11月11日 陰10月 4日	木	慶北 義城郡 義城邑 杏峴里
翼元公諱士衡 之墓	11月16日 陰10月 9日	火	京畿道 楊平郡 楊西面 木旺里
掌令公諱萇 之壇	11月 8日	月	京畿道 義旺市 浦一洞 廣谷里
書雲觀正公諱綏 之壇	陰10月 1日		
安靖公諱九德 之墓	11月11日 陰10月 4日	木	京畿道 驪州郡 南面 元承里
副使公諱天順 之壇	11月23日 陰10月 7日	火	忠南 洪城郡 銀河面 大用里
判書公諱愼 大提學公諱承用 評理公諱厚 郡事公諱七陽	陰3月16日		全南 康津郡 鵲川面 土馬里南山

### 周知事項

忠烈公 時享은 陰10月9日(陽11月16日) 9시부터 올린 後待機시킨 버스로 檜谷洞에 가서 할머님 時享을 올리고, 中食後 그 버스로 安東驛에 오후 2時30分까지 도착하여 귀가길에 오르도록 從來2日에 걸친 時享을 하루로 短縮하여 수년전부터 계속 奉行하오니 全國宗親께서는 이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追而：京鄉各地에서 時享에 參席하는 祭官들은 陵洞齋室에 備置한 到記에 必히 記名하시길 바랍니다.

## 忠烈公 할아버님 699 周忌追慕祭 奉享

지난 9월 25일 음8월 16일 大宗會에서는 會長任의 參席裡에 多數의 宗親들이 參詣한 가운데 鼻祖이신 忠烈公 할아버님 699周忌追慕祭를 奉行하였다. 事務局長 命會의 執禮로 會長님께서 焚香과 降神 初獻禮를 한 후 멀리 全北 井邑에 居住하는 郡事公派 察訪公後孫 榮得賢宗과 俊會賢宗이 參席하였기에 榮得賢宗이 亞獻禮를, 終獻禮는 文溫公派 會長 琮會賢宗이 하였다. 이날 더욱 고마운바는 井邑宗親들이 追慕祭에 參席한것만도 참으로 감격스럽고 고마운바인데 獻誠金을 俊會賢宗이 50만원과 榮得賢宗께서 10만원을 獻金하였고 琮會賢宗이 3만원의 香燭代를 獻誠해 주었다. 이에 執行部에서는 크게 感謝드리는 바이다.

來年은 할아버님 서거하신지 꼭 700周忌가 되는 해이다. 이 때에는 많은 後孫들이 參詣하여 할아버님의 崇高하신 忠節을 追慕하고 英靈을 위로함은 물론 遺業을 回顧하며 할아버님의 蔭德을 기려 崇祖敦睦을 繼承할것을 새로이 다짐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同參할 것을 追求하는 바이다.



## 白凡紀念館建立 趣旨

우리는 大韓民國 은 國民의 이름으로 白凡紀念館의 建立을 決意하고 이에 그 發起를 宣言한다.

白凡 金九先生은 그의 波瀾萬丈한 生涯를 오직 祖國과 民族의 獨立과 統一에 모두 바치신 우리 民族의 영원한 스승이시고 民族 指導者이시다.

우리 大韓民國의 뿌리는 憲法前文이 밝히고 있는바와 같이 大韓民國 臨時政府이다. 누가 온갖 逆境 속에서 臨時政府를 지킨 臨時政府 '문지기'였으며, 누가 臨時政府 主席으로서 祖國의 自由와 獨立을 위해 最後까지 血鬪를 展開한 萬古의 愛國者인가. 우리는 白凡 金九先生이 바로 그 분임을 모두 알고 있다.

白凡 金九先生은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네 所願이 무엇이냐고 세 번이나 연달아 물으셔도 세 번 다 더욱 소리 높여 「내 所願은 우리 나라 大韓의 完全한 自主獨立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하셨다. 또 祖國 分斷의 悲劇 앞에서 「나는 統一된 祖國을 建設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一身에 苟且한 安逸을 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白凡先生의 수 많은 가르침이 七千萬 同胞의 가슴을 울린다.

殘酷한 日本 帝國主義者들이 天文學的 懸賞金을 걸고 日帝 軍警을 풀어 百方으로 쫓아도 쫓지 못한 先生을, 우리는 光復 後 祖國 땅 위에서 歸國하신 先生을 잃었다.

선생이 우리 겨레에게 바치신 河海같은 恩功에 어울리는 報答은 커녕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드렸는가. 하늘이 울고 祖國 山川도 모두 痛哭할 일이다. 이렇고서도 우리 韓民族이 先進 國民이 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온 國民의 精誠과 벽돌을 하나씩 모아, 뒤늦게라도 白凡紀念館을 建立하려 한다. 白凡을 紀念하는 이 殿堂에서 國民들과 우리 後孫들이 白凡의 精神과 思想을 배우고 繼承 發展시키며, 白凡이 세우고자 했던 自由獨立하고 統一된 民主的 先進 文化國家를 建設 發展시키고 全世界 全人類와 世界平和에 寄與하는 일을 討論 構想하려 한다. 이것이 白凡先生이 우리 民族에 바치신 精誠에 萬分의 一이라도 報答하는 길이라고 우리

는 생각한다.

우리 동포 형제들은 白凡紀念館을 세우는 일에 벽돌 한 장씩 정성을 모아 白凡精神을 繼承해서 韓民族의 獨立 統一과 全世界 人類의 平和로운 共同發展을 위한 熱意를 다시 다짐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위와 같이 凡國民의 事業으로 白凡紀念館建立 경비를 모금함에 있어 우리도 同參치 않을 수 없어 大宗會에서는 앞으로 계좌를 설정하여 宗親들의 誠意있는 參與를 촉구하며 各派宗會에서도 적극 參與運動을 展開하여 募金이 되는 대로 大宗會로 送付해 주시면 一括收合하여 적시에 전달하려 하오니 이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많은 參與를 부탁드립니다.

### 10月の護國人物 金時敏 將軍

임진왜란 때 왜군을 맞아 혁혁한 전공을 세운 뒤 전사한 金時敏(1554~1592) 장군이 '10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됐다고 전쟁기념사업회(회장 洪恩杓)는 밝혔다.

장군은 1578년 무과에 급제, 淸平부사 및 진주판관으로 일하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진주목사 대리직을 맡아 진주방향으로 침입한 왜적을 의병장 李達, 郭再祐 등과 합세해 격파했다. 장군은 이어 왜군이 점령했던 고성과 창원 등을 탈환한 뒤 의병장 金沔의 지원 요청을 받은 뒤 병력 1000여명을 이

끌고 거창 사랑암으로 진출, 서남진하던 왜적을 크게 무찔렀으며 1592년엔 진주목사로 승진했다.

장군은 1592년 12월 26일 진주성을 포위한 왜군 2만 여명을 맞아 3800여명의 병력으로 맞서 공방전을 벌인 끝에 퇴각시켰으나 적탄에 맞아 순국했다. 조정에선 그뒤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에 제수했다.



### 宗中 爲先事業 誠實히 施行



按廉使公派에서는 忠孝節義를 지켜오신 按廉使公 할아버님의 忠魂義魄이 잠들어계신 永慕齋를 重修하였다. 永慕齋는 1678年(肅宗4年)에 創建된 후 310年만인 1988年에 大幅的인 重修를 하였으나 지금에 이르러 蓋瓦가 부식되고 椽木이 썩어 倒壞의 우려가 있어 蓋瓦를 改葺하면서 재실전체를 부족한 宗財이었으나 加用豫算과 獻誠金 등으로 改補修 工事を 마치고, 또 按廉使公 神道碑 및 碑閣을 改修하였는데 梧隱公의 神道碑는 公의 먼 外孫이며 純祖때의 領相이요 高麗史에 第一人者로서 高麗名臣傳을 지은 南公徹 先生의 名作인데 그 銘文末尾에 螭首龜趺刻在基門이라 明記되어 있으니 즉 '용머리 거북받침으로 그 묘앞에 새겼도다'라는 뜻인데 實物인즉 加擔石에 平基石으로 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遺憾으로 여겨오던터에 이번에 改修하면서 碑銘에 反하여 誤謬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어 이를 螭首龜趺로 改造하는 한편 碑閣全部를 重修하였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 事業을 완수하기 까지 피나는 勞苦를 하신 派宗會長 在澤賢宗을 비롯 諸賢宗께 찬사를 올립니다.

### 祝 章會先生 頌德碑 建豎

지난 7월 5일 前按廉使公派 會長 및 大宗會 運營委員이셨던 春谷章會 賢宗의 頌德碑를 淸原郡 文義面 面民一同이 豎立하고 面民과 宗親多數의 參席裡에 除幕式이 있었다.

#### 春谷 金章會先生頌德碑文

先哲之訓이 言思必忠하고 事思必敬이라 하였나니 이를 익히기는 可能하되 이를 實踐躬行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로다. 여기 對人凡百에 깊은 思慮와 情念으로 誠實을 다하고 凡事處理에 敬慎과 誠勤으로 善後之策이 完璧한 高潔之士가 있으니 곧 春谷 金章會 先生이다. 그는 高麗朝의 賢相名將으로 國史에 燦然한 偉業을 남기신 上洛郡開國公 諡忠烈 諱方慶을 中始祖로 麗末守節臣 梧隱 按廉使公 諱士廉의 二十代孫으로 西紀1938年에 由緒 깊은 槐山青川의 桑梓之鄉을 떠나 이곳에 移居하였다. 養性山이 峻秀하고 馬九川이 溶溶하여 山紫水明한 自然環境에 心醉하였을 뿐 아니라 그 十五代祖 諱堉公께서 往昔에 文義 懸令에 莅任하였던 緣由를 敬慕하고 또한 自身은 法務士의 길을 精進하기 위함이었다. 爾來 六十余年의 光陰과 八十有三의 耄老에 이르기까지 이곳 文鄉의 傳統禮俗과 古昔文物을 維持保存하고 이 地域次世代의 啓導發展을 위하여 心血을 傾注하였으니 豐盛한 概況을 살펴본다.



水沒된 鄉校垆地 및 店舖補償金을 受領預置하였다가 米川里 121의 7垆地 99坪위에 鐵筋造 二層 建物を 新築하여 釋奠大祭奉行과 文廟守護에 永久한 基盤을 造成하였으며 1980年에 이르러 文義鄉校를 地方有形文化財 第94號로 登錄하였다. 1963年에는 當時 申灌雨 國會議員의 支援을 힘입어 南一面 高隱橋外 八個部落의 小河川에 小橋를 架設하여 洞民의 便益을 提供하였고 한편 德留의 外德光院에 敬老堂을 新設하여 老人慰樂을 도모하였다. 1978年에는 文義地方의 가장 古雅한 遺物인 文山館을 文化財49號로 登錄함과 同時에 水沒對策當局과 折衝하여 補償金을 支給받아 鄉校 옆으로 移建하고 아울러 石橋二間을 架橋하였다. 1980年에는 後谷里 延安李氏 門中の 理江影堂 및 佳湖里 同福吳氏 門中の 孝婦旌閭閣과 德留里 晋州姜氏 門中の 忠孝閣 등을 要路에 建議하여 國地方費의 支援을 받아 現位置에 移建復元하였으며 1983年이래 1992年에 이르는 동안 文義 鄉校에 忠孝教室을 年二回 開講하여 講師로서 聽講生 千余名을 輩出하였으며 1991年에는 文義鄉校誌를 發刊하여 要路機關과 後學에게 널리 配布하였으며 1992年에는 地方巡視次 來面한 當時 盧泰愚 大統領께 地方民間人 招請懇談席上의 建議事項으로 米川里 앞 高水敷地를 利用 體育廣場을 造成할 것을 稟請하여 이를 實現케 하였고 其間의 功으로 長官, 知事, 郡守, 法院行政處長賞 등을 受賞하고 1997年에는 淸原郡民大賞本賞을 受賞하였으며 또한 地域老人會 運營과 面民福祉增進에도 남다른 精誠으로 盡力하였다.

公의 地域開發과 發展에 奇與한 誠力과 莫重한 積功은 敍上略記한 바와 같거니와 莊重한 人格과 그 功業을 鄉閭의 師表로 永遠도록 紀念하고자 面民一同의 뜻을 모아 이 碑를 세운다.

西紀 1999年 7月 25日 淸原郡 文義面 面民一同 豎立

### 東谷 故 在鴻先生 功績碑 除幕式 舉行

東谷 故 在鴻氏는 提學公 十九代孫으로 大宗會理事를 歷任하였으며 社會事業으로는 尹奉吉義士 獎學財團理事長, 孝昌園 殉國先烈 追慕會委員長, 柳寬順烈士紀念事業會長 등 其外에도 여러 顯揚事業에 몸부처 오던중 1997년 4월 20일 향년 70세에 별세하였다. 지난 9월 4일 이의 赫赫한 功을 기리기 위하여 功績碑를 세우고 天安市長을 비롯 각계 인사들과 宗親多數의 參席裡에 天安市 竝川面 塔원리 사적관 리소앞 東산에서 除幕式을 舉行하였다.

#### 東谷金在鴻先生功績碑文

예로부터 나라와 사회에 공헌한 분의 공적을 찬양하여 후진들의 귀감으로 삼는 것은 좋은 풍속이다. 天安출신중 의인열사승모사업에 헌신하신 분이 계셨으니 선생은 東谷金在鴻이시다. 貫鄉은 安東이시고 壬辰亂때의 忠武公 金時敏장군의 十代孫이며 父親振默과 母親 東萊鄭氏 사이의 독자로 단기 4262년(서기1927) 9월 15일 天安市 城南面 大花里에서 낳으시니 자질이 총명하여 木川初等學校를 거쳐 檀國大學校政治學科를 卒業한 후 軍에 입대 국가의 간성으로 활약하였으며 陸軍中領으로 제대하여 尹奉吉義士 장학재단 이사장, 孝昌園 國선열 李東寧, 金九, 曹成煥, 車利錫, 李奉昌, 尹奉吉, 白貞基 七位 추모회 위원장으로 매년 승모행사를 주관하셨고, 柳寬順烈士 기념사업회장으로 사우경내에 열사의 동상 및 기념비 건립과 招魂墓, 봉화대, 등반로, 계단, 경향 각급학생 및 교사의 추모詩碑二十四기를 설치하였으며, 李東寧先生 기념사업회 상



임부회장, 충헌공 朴文秀 선생 기념사업회장, 아우내기미독립만세 유공자 金球應선생 승모사업회장, 李奉昌義士 기념사업회장, 崔時亨 선생 동상건립회장, 李範奭장군 기념사업회이사, 木川기미독립운동기념사업회장, 아우내기미만세운동, 순국선열추모제, 봉행 등 민족을 대표해서 전 심혈을 경주하시다가 큰일을 끝낼 즈음에 불의의 병마로 단기4230년(서기1997) 4월 21일 향년 70세에 별세하시니 모두가 애석히 여겼다. 장하도다 선생은 가사를 돌보지 않고 수십년 동안 오직 승모의열사업을 하셨으니 이 어찌 장하다 하지 않으리오. 선생이 타계하신지 3년 天安市 유지인사의 헌성으로 선생의 혁혁한 공적을 기리는 비석을 마련함에 나에게게 비문을 청하거늘 동향의 정리로 군이 사양하지 못하고 이 글을 바치노니 큰 뜻을 품고 일찍 군문에 들어가 심리전에 전공이 빛났으며 의열사승모사업에 희생봉사하시니 실로 공의 공덕은 만세에 귀감이 되리다. 이제 이 비에 새겨서 아름다운 덕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한다.

단기 4332년(서기1999) 9월 일 淸庵 韓相旭 짓고 쓰다

宗中消息

江陵宗親會 理事會議 開催

지난 5월 1일 大會定期總會時 白凡先生의 紀念館建立推進 案內를 듣고 江陵宗親會에서는 7월 19일 理事會를 開催하여 이에 취지를 說明하고 協贊을 求한바...

여기 강릉중친회는 翼元公의 曾孫 牧使公 諱 磧의 後孫들의 集姓村이다. 그중에도 목사공의 둘째 아들인 贈戶曹判書永安君 諱 壽卿의 孫들이며...

提供 江陵宗親會長 榮燉

郡事公派 井邑宗中 先塋山所 靜化事業完工



郡事公派 井邑宗中은 落鄉祖 察訪公 諱 堉의 後孫들로 崇祖理念이 투철하고 宗親和睦이 敦篤하여...

로 가결하여 墓돌레석과 墓庭난간 石築공사를 70여만원을 드려 門中 顧問이신 榮得賢宗과 會長 彰會賢宗...

집안 賢婦에 感謝牌授與

여기 소개하는 賢婦 金賢子女士는 全北 井邑市에 거주하는 郡事公派 察訪公의 後孫 南默宗親의 婦人이다.

勤勉 表彰受賞



翼元公 20代孫 成會賢宗은 지난 9월 25일 勤勉誠實한 勞力으로...

난 보훈의 날 국가 보훈처장으로 부터 勤勉誠實한 勞力으로 自立을 이룩하여 國家社會發展에 이바지한 功勞에 대한 褒賞을 받았다.

祝 昇進

忠烈公 二十五代孫 都評議公 二十一代孫 炳日 賢宗은 지난 六月에 公正去來委員會 事務處長(一級)으로 昇進하였음을 祝賀드립니다.

訃 音

洙栢氏配 金海金氏

지난 8월 31일 大會監事 洙栢氏의 室人 金海金氏께서 오랜 지병으로 서울 중앙병원에서 別世하였음을 알립니다.

시호(諡號)에 관한 소고(小考)

종친(宗親)과 문무관 중에서 정이품(正二品)이상의 관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죽으면 시호를 주었는데 시호를 정하는 절차는 해당자의 자손이나 유림관계자들이 죽은이의 행장(行狀)을 적은 시장(諡狀)을...

원(元), 단(端), 소(昭), 장(章), 신(信), 후(厚), 명(明) 등등 120여자가 있다.

한 자 한 자마다 정의(定義)가 있어서 생전의 행적에 알맞는 글자를 조합하여 두자로 만들고 시호 아래 공(公)자를 붙여 부른다. 시호에 사용되는 글자중 대표적인 글자의 정의를 간추려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문(文): 경천위지(經天緯地), 도덕박문(道德博文), 박학호문(博學好文), 박학다식(博學多識), 자혜애민(慈惠愛民), 충신애인(忠信愛人), 강유상제(剛柔相濟), 민민혜례(愍民惠禮), 수덕래원(修德來遠), 시이중례(施而中禮), 박학다견(博學多見), 경직자혜(敬直慈惠), 충신접례(忠信接禮), 석민작위(錫民爵位), 수치반제(修治班制).

\*. 충(忠): 위신봉상(危身奉上), 사군진절(事君盡節), 성쇠순고(盛衰純固), 여국망가(慮國忘家), 추현진충(推賢盡忠), 추능진충(推能盡忠), 겸방공평(兼方公平), 임란불망국(臨亂不忘國), 엄방공평(廉方公平), 임환불망국(臨患不忘國), 험불피란(險不避難).

\*. 정(貞): 청백수절(清白守節), 청백자수(清白自守), 직도불요(直道不撓), 대려극취(大慮克就).

(直道不撓, 대려극취(大慮克就)).

\*. 공(恭): 경사공상(敬事奉上), 경사봉상(敬事奉上), 경순사상(敬順事上), 존현귀의(尊賢貴義), 집심견고(執心堅固), 집사견고(執事堅固), 기과능개(既過能改), 불해우위(不懈于位), 존현경상(尊賢敬上), 존현양선(尊賢讓善), 애민제장(愛民弟長), 비이자수(卑以自收), 치전불역(治典不易), 책란우군(責難于君), 불해위덕(不懈爲德), 정덕미용(正德美容).

\*. 양(襄): 인사유공(因事有功), 유공정벌(有功征伐), 갑주유로(甲冑有勞), 피지유덕(避地有德).

\*. 정(靖): 관악영종(寬樂令終), 공기안민(恭己安民), 공기선언(恭己鮮言), 소심공신(小心恭慎), 유덕안중(柔德安衆), 온유안중(溫柔安衆), 정용과언(正容寡言), 불사조진(不仕躁進).

\*. 양(良): 온양호악(溫良好樂), 중심경사(中心敬事), 소심경사(小心敬事), 자인에인(慈仁愛人).

\*. 효(孝): 자혜애친(慈惠愛親), 자혜순친(慈惠順親), 계지성사(繼志成事), 능양능공(能養能恭), 자인에인(慈仁愛人), 오종안지(五宗安之), 병덕불회(秉德不回), 대려행절(大慮行節), 협시조형(協時肇亨), 간고용예(幹蠱用譽).

\*. 장(莊): 누정지화(屢征志和), 누정극화(屢征克和), 엄친임민(嚴親仁民) (4면에 계속)

韓國唯一의 綜合藝術의 殿堂



本社 社屋 全景

組版·印刷·製冊까지 唯一한 綜合工場

族譜 프로그램 自體開發 成功

族譜 出版의 元祖

回想社 6大 特徵

- 1. 創立 47年 歷史와 全國族譜 90%以上을 出版한 實績을 자랑하는 族譜界의 元祖
2. 컴퓨터로 迅速, 正確한 電子組版으로, 族譜 出版界의 一大革新
3. 春田體(漢文47,163字)開發 및 族譜프로그램으로 모든 僻字 完全解決
4. 編輯, 淨書, 出版, 印刷, 製冊을 모든 工程을 同一工場에서 一貫作業을 할 수 있는 全國 第一의 綜合工場.
5. 原稿에 誤謬가 있을시 組版前 即時 發見하는 30餘年間 勤續한 技能者 多數 確保.
6. 1,000餘坪 以上の 넓은 倉庫를 頌快完了에 까지 無料로 便宜提供.

\*컴퓨터만 있으면 索引을 통하여 派, 世, 代를 檢索할 수 있는 CD를 製作하여 드립니다. (既 發刊된 族譜도 CD製作)

回想社 서울支社 移轉

서울地域에서 族譜編輯 및 出版을 推進中인 門中の 便宜를 爲하여 本社에서는 서울支社를 마음하고 快適한 곳으로 移轉하여 各 門中の 收單, 淨書, 編輯, 校正에 이르기까지 모든 便宜를 서울支社에서 提供코저 하오니 많은 聲援과 利用으시기 바랍니다.



서울支社 略圖

\*지하철 5호선 마포역 하차 4번 출입구로 나오셔서 마포대교옆 강변한신코아 1412호 입니다.

族譜, 古書 回想社 出版, 製冊

본사: 大田廣域市 東區 中洞 47-4 電話(042)253-9881~3 Fax(042)253-9891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50번지 지사 강변 한신코아 오피스텔 1412호 전화(02) 718-9881 Fax(02) 718-9882

### 찬조자 명단

1999년 7월30일부터 9월30일까지  
 五萬원 : 완수(都), 태희(翼), 세용(翼), 영용(未)  
 四萬원 : 선동(未)  
 參萬원 : 석재(翼), 명근(提), 영수(翼), 桂會(按), 태근(按), 재준(未), 대석(未), 성희(未), 만희(未)  
 計 510,000원

### 특별찬조금

壹百萬원 : 相祚(會長 : 신임회장취임고유제 및 상건례시)  
 五拾萬원 : 俊會(郡事公派 井邑 : 충열공699주기 추모시)  
 壹拾萬원 : 榮得(郡事公派 井邑 : )  
 三萬원 : 琮會(文溫公派 會長 : 충열공699주기 추모시)  
 計 1,630,000원

### 통상회비 납입자 명단

1999년 7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翼元公派 : 창희, 중식, 명희, 용서, 경중, 승묵, 영덕  
 按廉使公派 : 용희, 태은, 영희, 사진, 이희, 성진, 재황  
 提學公派 : 준웅, 광호 남웅  
 文溫公派 : 학묵, 정희, 철희  
 都評議公派 : 명동, 수봉  
 郡事公派 : 재찬  
 派未詳 : 덕묵, 재희, 중묵, 수석, 재봉, 재준, 경수, 태하  
 計 580,000원

### 誤字訂正

중보 65호 4면 '제32회 정기총회 시 찬조자 명단' 중 오만원 넷째줄 장희(郡)를 창희(郡)으로 정정.

(3면에서 계속)

(嚴親臨民), 무능지중(武能持中), 위이불맹(威而不猛), 누정살벌(屢征殺伐), 승적지강(勝敵志強), 치과살적(致果殺賊), 무이불수(武而不遂), 호용치력(好勇致力).

\*. 안(安) : 호화부쟁(好和不爭), 관유화평(寬柔和平), 여인무경(與人無競), 조민영뢰(兆民寧賴)

\*. 경(景) : 유의이제(由義而濟), 수의불굴(守義不屈), 포덕행강(布德行剛), 포의행강(布義行剛), 기의대도(耆意大圖), 기의대응(耆意大應), 이의성사(以義成事).

\*. 장(章) : 출언유문(出言有文), 온극령의(溫克令儀), 법도대명(法度大明), 경신고명(敬慎高明).

\*. 익(翼) : 사려심원(思慮深遠), 애민호치(愛民好治).

\*. 소(昭) : 용모공미(容貌恭美), 용의수미(容儀修美), 용의공미(容儀恭美), 성문주달(聲聞周達), 명덕유로(明德有勞).

\*. 평(平) : 집사유제(執事有制), 포강치기(布剛治紀), 치이무생(治而無省), 법도개리(法度皆理).

\*. 희(僖) : 소심공신(小心恭慎), 소심외기(小心畏忌), 소심외신(小心畏慎), 무과위희(無過爲僖), 질연수련(質淵受鍊).

\*. 무(武) : 절충어모(折衝御侮), 극정화란(克定禍亂), 강강직리(剛強直理), 강강이순(剛強以順), 보대정공(保大定功), 벽토척경(闢土斥境), 위강적덕(威強敵德), 형민극복(刑民克服), 제위영진(除偉寧眞), 과지다궁(夸志多窮).

\*. 강(康) : 연원유통(淵源流通), 온양호악(溫良好樂), 온유호악(溫柔好樂), 안락무민(安樂撫民), 안락치민(安樂治民).

\*. 정(正) : 이정복지(以正服之), 이정복인(以正服人), 내외빈복(內外賓服).

\*. 경(敬) : 숙야영계(夙夜儆戒), 숙야공사(夙夜恭事), 영선전법(令善典法), 선합법도(善合法度), 숙흥야매(夙興夜寐).

\*. 정(定) : 덕행불상(德行不爽), 순행불상(純行不爽), 안민법고(安民法古), 안민대려(安民大慮), 대려정민(大慮靜民).

\*. 혜(惠) : 유질자인(柔質慈仁), 유질자민(柔質慈民), 유질안민(柔質安民), 심성자상(心性慈祥), 애민호흥(愛民好興).

\*. 헌(憲) : 선행가기(善行可紀), 박문다능(博文多能), 상선벌악(賞善罰惡), 박문다견(博文多見), 유학유재(有學有才).

\*. 열(烈) : 안민유공(安民有功), 유공안민(有功安民), 병덕준업(秉德遵業), 집덕병업(執德秉業), 이무입공(以武立功).

\*. 헌(獻) : 총명에철(聰明睿哲), 총명에지(聰明睿智), 향충내덕(嚮忠內德), 지려자조(智慮自燥), 지질유리(智質有理), 사리개통(事理皆通), 지질자조(智質自操), 지질유성(智質有聖).

\*. 간(簡) : 일덕불해(一德不害), 정직무사(正直無邪), 정기무사(正氣無邪), 치전불살(治典不殺).

\*. 원(元) : 주의행덕(主義行德), 능사변중(能思辨衆), 민열기의(民悅其義), 도덕순일(道德純一), 치건국도(治建國都).

\*. 성(成) : 안민입정(安民立政), 예악구명(禮樂具明), 좌상극중(佐相克終), 위상극중(爲相克終), 통원강립(通遠強立).

\*. 목(穆) : 포덕집의(布德執義), 중정견모(中情見貌), 중심견모(中心見貌).

\*. 절(節) : 호겸자극(好廉自克), 근신제도(謹身制度), 근행제도(謹行制度), 불치정욕(不侈情欲).

\*. 강(剛) : 수의불굴(守義不屈), 강의과감(強毅果敢), 치과살적(致果殺敵).

\*. 장(狀) : 승적극난(勝敵克亂), 승적지강(勝敵志強), 무능지중(武能持重).

\*. 의(義) : 선군후기(先君後己), 선공후기(先公後己), 견의능충(見義能忠), 행의능종(行義能終), 제사합의(制事合義).

\*. 도(度) : 심능제의(心能制義), 제사합의(制事合義), 제사득의(制事得義).

\*. 명(明) : 독견선식(獨見先識), 임조사방(臨照四方), 사려과원(思慮果遠).

이상 지면상 전부를 기록하지 않는다.

시호의 글자를 둘러싸고 시비와 논란이 많았으며 뒷날에 이르러 개시(改謚)를 요구하는 일도 많았다. 시호중에는 문(文)자와 충(忠)자가 들어간 시호를 가장 존귀하게 여겼는데 특히 숭문주의(崇文主義)로 인한 문반우위의 시대였던 만큼 문자 시호를 최고 영예로 여겨 자손들이 이를 자랑으로 삼는 것이 당시의 통념이었다.

무인(武人)의 시호로는 충무(忠武)가 가장 영예로움직 하며 특히 충무공하면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연상되지만 그 밖에도 조영무(趙英茂), 남이(南怡), 구성군준(龜城君

이 시는 按廉使公 20代孫 忠北鎮川郡守 慶會賢宗께서 花郎文化 祝祭에 參席한후 쓴 詩文으로 宗報에 紹介합니다.

### 당신의 뜻

김 경 희 (진천군수)

아! 그날의 태양은 폭염이었다.  
 열새없이 흐르는 땀은 몸 적셔도  
 일천사백년 침묵을 깨는 순간 긴장이 돌았다.

'고천제'로 시작된 불꽃 집화  
 향내음 맡으며 깨어난 장군의 혼 하늘과 땅의 힘 화경에 모으고  
 하얀연기 속에 불꽃이 일어난다.  
 하늘 땅 사람 하나되어 불이 붙었다. 성화다!  
 감회의 순간, 환희의 기쁨  
 북받치는 감격의 순간을 화랑의 후예들이 태권무로 춤을 춘다.  
 태실에서 이어지는 성화봉송  
 산아래 탄생지로 화랑의 후예들, 손과 손을 넘어  
 성화가 봉송된다.

탄생지에 성화가 안치되는 순간 먹구름 물러오고  
 국사봉 환희봉 사이에서 일어난 천둥 번개  
 한 줄기 비조차 뿌리지 못한 채  
 먹구름에 휩싸여 하늘 저편 멀어져 간다.  
 장군의 화랑열기 식을까 보아  
 하늘도 비구름을 거두어 버렸다.  
 일천사백년 잠을 천둥 번개 동반하여 큰 기지개 쳐고  
 감격의 울음 대신한다.  
 잠에서 깨어나는 사자의 포효처럼.....  
 꿈 속에 나타난 장군의 모습  
 앞마당 우뚝선 거대한 고목  
 비석을 등에 얹은 돌 거북의 삼각구도속 꽃밭위에  
 평온한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을 맞이하라는 장군의 암시였음을 이제야 알았노라

'홍무대왕 김유신장군'  
 오랜 기다림의 역사는 잠을 깨운다.  
 천 년의 기다림은  
 천 년의 꿈에서 민족혼을 잠깨우고  
 새 천 년의 시작에서 민족의 자긍심 불꽃이 피어난다.  
 화랑의 넋이 일어난다.  
 장군의 성스러운 업적을  
 누구도 따를 수 없었던 장군의 위용을  
 삼국통일에 민족화합을 이룩한 장군의 삶을  
 왜? 누가? 왜곡하였던가.

아! 이제 알았노라  
 일천사백년의 긴 기다림을  
 천년 만년 이어질 우리 민족의 혼 화랑정신을...

浚), 정충신(鄭忠信), 김시민(金時敏), 김응하(金應河), 이수일(李守一), 구인후(具仁厚)등 충무공이 8명이나 있다.

시호는 홍문관에서 최종심의하여 시호를 정하여 왕의 재가를 받는다. 그러나 한편 임금의 특별한 교시가 있을 때는 자손의 시호를 기다리지 않고 홍문관과 봉상시(奉常寺)에서

직접 의정(議定)했는데 이는 퇴계(退溪) 이황(李滉)에게 문순(文純)이란 시호를 내려준데서 비롯했다. 또 정이품의 벼슬이 못되었으면서 시호를 추증받은 유현(儒賢)으로 김굉필(金宏弼) 문경공(文敬公) 서경덕(徐敬德) 문도공(文度公) 김장생(金長生) 문원공(文元公) 정약용(丁若鏞) 문도공(文度公)등이 있다.

### 뿌리공원 造成에 대한 小考

뿌리공원 조성은 3년전부터 大田市 中區廳에서 주관하여 대전시 중구 안평동에 公園을 造成하고 그곳에 各 姓氏의 表像을 建立케하여 姓氏의 由來를 널리 알려 역사의 장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뿌리공원이라 이름하여 조성한 공원인데 현재 많은 성씨들이 表像을 建立하였다. 이에 우리 안동김문은 지난 7월 忠烈公墓所에 會長就任告由祭行事때 대전중친회 명예회장이신 提學公派 泰榮賢宗과 會長 翼元公派 容郁賢宗, 財務 翼元公派 洙欽賢宗이 참석하여 대전 뿌리공원에 우리 安東金氏의 表像을 大田宗親會에서 建立키로 結定하고 表像造形圖와 計劃書를 提示하여 接受한 바 發起人大表는 提學公派 泰榮賢宗, 發起人 翼元公派 現會長 容郁賢宗, 提學公派 馥應, 翼元公派 文

會, 都評議公派 在權, 按廉使公派 寬會, 翼元公派 洙欽賢宗등 七人으로 構成하고 後援會는 大宗會로, 後援會長은 會長 相祚, 副會長엔 斗會, 容學, 東會, 事務局長 命會이며, 建立推進委員은 發起人代表 泰榮賢宗外 八名과 顧問에 坡會, 文會, 仁會 賢宗, 諮問委員에 在冕, 寬會, 承默, 廣浩, 允會 賢宗 등을 위촉하여 圖案 및 文獻까지 準備가 끝나있었고 敷地選定만 남았다 한다. 이렇듯 大田宗親會에서 우리 安東金門의 大業을 推進함에 있어 大宗會에서는 無限한 感謝를 드리는 바이오며 온 종친들께서는 뜻을 모아 至大한 勞苦를 아끼지 않는 大田宗親會 任員 및 表像建立 推進委員들께 격려와 협찬이 이어지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